

1차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큐시트

주제 : 비폭력, 비폭력 트레이닝

흐름	내용		준비물	담당자
도입 (30분)	1. 환영인사, 2. 트레이너 소개, 3. 모임의 목적 및 만들어진 과정 소개 - 전쟁없는세상 고민의 단상 (병역거부운동(좁은 의미에서)에서 반군사주의 운동으로 보다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 가자는 문제의식) → 비폭력 프로그램 시작 (비폭력캠페인을 위한 안내서 번역, 출판) -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준비모임 제안 → 5회의 Pre-session들과 10월 초 Training for Trainers 교육을 거쳐 정식 발족을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① 정기·부정기적 트레이닝 워크숍을 제공함으로써 비폭력트레이닝을 원하는 사람 혹은 그룹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② 트레이너 스스로들이 경험, 자료 등의 공유를 통해 트레이닝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③ 새로운 트레이너들의 발굴 ④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비폭력적이며 창의적 방식의 운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4. 트레이닝 참가자 소개 잘 모르는 사람과 2명씩 짝을 지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 트레이닝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뭘 해보고 싶은가? 듣기훈련임. 각자 2분씩. 큰 그룹에서 옆 사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전지에 (진한 글씨 내용 미리 써 두기)	오리
오늘 일정 소개 우리들 의 자세 (20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가지씩 트레이닝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하기. 말한 내용을 칠판에 브레인스토밍 => 최종 내용을 자보에 정리해둔다.		화이트 보드 전지, 매직	
비폭력 게임 (30분)	갈등선 게임 + 십자모양 스펙트럼	가능한 질문들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행위, 간디의 독립운동 방식 중 유명한 것이 보이콧이다. 간디는 인도사람들에게 영국제 옷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했고 옷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영국산 옷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 보이콧은 폭력? 비폭력? 새누리당 당사 현관의 현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건설현장에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주유구에 모래를 붓는 등의 행위,) 가능한 추가질문: 만약 어쨌었다면 이 행동이 비폭력적일 수 있었을까?		
영상 시청 (15분)	영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미국 시민권운동, 오토포(Otpor) http://www.youtube.com/watch?v=Ermfjrjrq_wJQ 오토포(Otpor) http://www.youtube.com/watch?v=UpGWkPBpMaY	빔, 스피커	지선
비폭력 트레이닝에 대한 토론 (15분)	소그룹 토론 -> 전체 발표 (4사람이 한 모듬이 된다. 앉은 상태에서 1,2,3,4번을 정하고 1번 모이는 모듬, 2번 모이는 모듬 등 번호 모이기)	<토론 내용> 1. 운동에 있어서 비폭력 트레이닝의 역할 2. 트레이너의 역할 3. 트레이너에게 필요한 것들	모듬별 전 지, 매직	
마무리 (게임+ 다음 모임 공지) (10분)	<공 주고 받기 게임> : 먼저 말한 사람이 다음 말할 사람에게 공을 던져서 느낌 발표하기 1. 오늘 활동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2. 다음에 더 좋게 할 만한 아이디어 *주의 : 평소 친한 사람에게 던지지 않기	다음 모임 정하기	공	아침, 지선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2006년 평택, 2008년 촛불, 2012년의 강정에서 비폭력은 운동의 중심 슬로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80, 90년대 노동자, 학생 중심의 군사적인 운동이 사그러져 가는 자리에 비폭력 운동은 한 마리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2008년 촛불에서는 폭력VS비폭력이 합법VS비합법 논쟁과 헛갈리게 꼬여가면서 꽤나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이론 혹은 사상에 대한 논쟁의 지나친 역사와는 다르게 한국의 운동에서 운동의 방식(누군가에게는 철학에 가까울테지만)을 두고 크게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몇 여성단체들이나 신생 평화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운동방식의 지나친 민족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이 종종, 지엽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뒤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봤을 때 일제독립운동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운동은 (자연발생적인) 비폭력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안하는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사회운동, 신생운동, 기존운동에 (전략적인) 비폭력적인 운동의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씨앗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존 방식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좀 더 나아가 비폭력적인 방식이 그 대안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때문에 조직의 운영과 활동 자체의 민주성, 자발성,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트레이닝인가, 훈련인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비폭력 운동인가 하는 점인데요. 비폭력운동은 흔히 이스라엘의 불도저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활동가들의 사진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에서 폭약저장고나 기지사업장 정문을 막아서는 PVC 파이프 인간띠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즉흥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한국에서의 운동은 대부분) 성공적인 비폭력운동의 배경에는 오랜 세월 이를 위해 훈련하고 토론하고 기획하고 준비했던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노력이 존재합니다. 설사 즉흥적인 캠페인이 단발적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사람들의 공감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운동의 승리(물론 승리라는 단어조차도 매우 논쟁적인 것입니다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준비 없는 직접행동은 그 행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폭압적인 공권력의 폭력으로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며 어떤 경우 대중에게는 평화운동에서 우리가 적극 반대하는 영웅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남게 되기도 합니다. 비폭력 트레이닝(문제 분석, 대안 구상, 요구사항 마련, 캠페인 전략 개발, 행동 계획 세우기 및 준비하기, 행동 평가 등등) 등 비폭력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은 시위자들이 자신이 참가한(할) 시위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보다 효과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위의 영향력이 배가되며 만일에 있을 위험성과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비폭력행동 자체의 한계를 넓혀가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말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를 강타하며 세계를 휩쓴 아쿠파이(Occupy) 운동은 비폭력행동의 힘을 다시 한 번 드러내 보임과 동시에 비폭력 트레이닝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2008년 한국의 촛불과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인종 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배경, 경험, 정치적 철학까지 모두 다 다른 수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폭력 트레이닝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운동 역시도 이러한 비폭력직접행동 및 트레이닝에 대한 요구 및 욕구가 늘어온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러한 행동을 위해선 그에 적절한 민주적인 조직형태, 조직운영, 비폭력에 대한 조직의 철학, 및 소통방식이 필요합니다. 비폭력트레이너는 이렇게 그룹들이 서로 협동하여 효과적인 비폭력행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너의 역할은 크게

④ 트레이닝(워크숍) 기획 : 각 그룹의 조직자와 함께 트레이닝(워크숍)의 목적을 상의하고 예상가능한 결과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장소, 참석자 등을 함께 기획·조직하고 어떤 내용의 트레이닝(워크숍)이 목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내용을 만들어 갑니다.

④ 트레이닝(워크숍) 진행 : 참여자들의 면면을 잘 파악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닝 내용에 따라 적절한 게임, 강의 등을 배치하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관리하고 트레이닝 진행 내용을 적고 요약합니다.

④ 트레이너(촉진자)의 태도 : 트레이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트레이너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가 트레이너는 단순진행자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 공부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네트워크의 장·단기적인 전망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단 올 해는,

- 기본적으로 비폭력운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녀성비, 연령, 지역 고려하여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준비모임을 구성한다.
- 1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10월 초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을 겨냥, 비폭력 캠페인을 위한 핸드북 스터디 모임을 갖는다.
-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10월 4일~7일)을 한다. 이후 이러한 트레이닝은 정기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비폭력트레이너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실정에 맞는 게임, 수단 등 개발, 보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④ 문의 : 오리 (02 6401 0514)

갈등선 게임

활동명 : 갈등선(Conflict Line) 게임

소요시간 : 최소 15분

활동의 목적 :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다뤄왔는지, 혹은 문제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쉽게 폭력을 생각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군사적인 사고방식을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비폭력적이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게임이다.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촉진자는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수로 2줄을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고 서서 자신의 짝이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사람들에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커플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서로 악수를 하고 손을 잡으라고 한다. 지시사항은 오직 하나, ‘상대를 당신 편으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시작!’

<경험나누기>

-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 지시사항을 얘기하고 ‘시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주의 :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과 싸우기 위해 폭력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은 첫 번째이자 아마도 유일한 옵션으로 비춰진다.

- 우리는 군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 누가 ‘승리’했는가?
- 대안적인 해결방식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가?
- 두 명 모두가 승리한 커플은 없었나?
- 어떻게 모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두 명 모두가 함께 지시를 따를 수 있을까?

가능한 윈-윈 해결방식 : 커플이 자리를 바꾸거나 혹은 한 쪽으로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

- 만약 커플이 남녀 혼성이었다면?
- 이 구성에서는 누가 ‘승리’할 것인가? 동성커플 게임에서 옵션이 물리적인 힘이었을 때 사람들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 반대로 남녀 혼성의 경우 역시 힘이 해결책이었을 때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의문이 덜 생겼다.
-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것이다. 무장군인 혹은 ‘남성’ 보안경비에 직면한 ‘여성’, 폭력은 사용하기에 적당한 도구가 아니다.
- 어떤 해결책들을 시도해야 할까?

십자모양 스펙트럼

활동명 : 십자모양 스펙트럼

소요시간 : 최소 20분

활동의 목적 : 효과적인 비폭력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들을 드러내기 위해. 효과적인 비폭력행동(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때 이를 시험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테이프로 바닥에 커다란 십자모양(+)의 선을 그어 사람들이 그 위에 늘어설 수 있도록 한다. 한 수평선의 양 끝에는 '비폭력'과 '폭력'을 적어놓고, 다른 수직선의 양 끝에는 '효과적', '비효과적'을 적어 놓는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행동 시나리오를 말해주고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예, 비폭력적이지만 효과적이진 않음)에 따라 위치를 잡으라고 말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왜 거기에 서있는지를 물어본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만약 이 활동의 목표가 특정 상황에서 새롭고 효과적인 비폭력행동을 개발하는 데 있다면, 촉진자와 참가자들은 효과적이며 비폭력적인 위치 쪽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비폭력적인 행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논의하고 확인하면 그 목록을 적어둔다(예, 참여자 전원이 트레이닝을 거치는 것, 적절한 언론 대응 등).

만약 이 활동의 목표가 비폭력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면 다양한 사례(촉진자와 참가자 모두가 제안할 수 있음)들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진행하면 된다.

참여자들이 효과적인 비폭력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하자. 활동의 목표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참여자들이 여러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만약 목표가 만족할 만한 비폭력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다면 시간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로 길어질 것이다. 이 활동은 브레인 스토밍과 함께 진행하기에도 적절한 활동이다.

비폭력이란 무엇이고 왜 비폭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당신은 왜 비폭력캠페인을 위한 안내서에 관심을 갖는가? 아마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거나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적개심을 조장하는 행동들, 적어도 사회적 변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적인 결과를 증명할 수 없는 캠페인들에 대해 비폭력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은 단지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단체가 이미 조직하고 있는 행동이나 캠페인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얻길 원하는 지도 모른다.

이 안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폭력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정의는 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폭력(물리적 폭력 혹은 '구조적 폭력(빈곤, 사회적 배제와 억압)'이라 불리는 폭력)을 끝내고자 하는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설명은 아니다. 보다 유창한, 보다 철학적인, 보다 특정 시공간적(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의 맥락적 의미)인, 덜 시적이며 개인적인 다른 정의들이 존재한다.

비폭력은 기본적인 정의를 넘어 권력관계 및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욕구, 모든 인간 및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심지어 삶의 철학, 사회적 행동의 이론 등 보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안내서를 계기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의 탐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비폭력행동을 함께 준비하면서 비폭력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의 발견하고 통찰력을 나누는 것은 풍부한 경험일 수 있다.

사람들이 왜 비폭력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인 기술이라 생각하여 지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식으로 실천적인 비폭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작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특정 캠페인에 대한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의 문구('비폭력행동의 원칙' 및 '비폭력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가 (미리) 이러한 스펙트럼 사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데 있어 어떤 차이들은 캠페인에서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비폭력적 방식이 효율적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비폭력적 태도의 핵심은 반대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차이가 드러날 때 만약 활동가들이 비폭력에 대한 서로의 근본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지점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사례(몇몇은 '이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할 때)는 캠페인을 계획하는 데 있어 활동가들의 요구사항 및 협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산에 상해를 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논쟁적일 수 있다. 어떤 활동가들은 재산에 상해를 가하는 것은 반대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가 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는 활동가들도 있다. 제3장은 캠페인 혹은 행동 가이드라인의 유용성에 대해 논한다. 재산상의 손해와 같은 논쟁적 주제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직접행동이 실행되는 순간까지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폭력행동은 반대자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심지어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다른 비폭력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전쟁범죄자', '인종차별주의자', '부패한 자'라는 낙인을 찍을 방법을 찾기도 한다. 이름을 소리쳐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에 대한 문제는 직접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잘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차이 및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등은 비폭력행동을 준비하는 '동아리' 차원에서 보다 깊게 토론될 수 있다. ('동아리' 부분을 참고하라) 이러한 소규모 동아리들을 구성하는 것의 목표는 구성원 서로가 비폭력행동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털어놓기 위한 편한 공간이자 또한 상호적인 배움을 위한 '신뢰할만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동아리 구성원들은 비폭력행동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문구(예를 들어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다')를 선택하고 그 문구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이슈들을 제기하는지를 서로 설명하고, 통찰력을 나누며, 토론을 통해 그들이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비폭력 활동가들의 공통된 태도는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미래를 표현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디가 얘기한 건설적 프로그램에 내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건설적 프로그램"을 참조하라) 그러나 또한 이것은 우리 혹은 우리 운동이 '평화가 되자'는 생각, 즉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반영한다는 신념이기도 하다. 우리가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다', '반대자를 존중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힘의 원천이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점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비폭력은 다음 3가지 지점에서 캠페인을 강화한다.

1. 캠페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참가자들 사이의 믿음과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비폭력은 (이상적으로는) 참가자들 스스로의 힘의 근원을 행동과 연결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얼마나 창조적일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2. 캠페인 반대자와의 관계에서: 비폭력은 반대자의 폭력을 허용하지 않거나 혹은 폭력적 억압은 정치적 '역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비폭력은 억압적인 기구를 떠받치는 '권력축'을 손상시킬 방법을 찾는다. ('권력축 분석하기' 또는 '우리 편 찾기' 연습사례 참조). 비폭력은 반대자들을 생명이 없는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충성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아직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폭력은 제3자 혹은 '외부인' (특정 문제에 대해 아직은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잠정적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편 찾기' 연습사례 참조)과의 의사소통의 질을 변화시킨다.

비폭력 사상의 개척자인 진 샤프(Gene Sharp)는 비폭력투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네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1) 전환: 종종 캠페인은 반대자들을 비폭력 활동가들의 관점으로 설득한다. 2) 강제: 때때로 캠페인은 옳고 그름에 관한 활동가들의 관점으로 반대자를 설득하지 않은 채 그들의 관점을 포기할 것을 강제하는 수도 있다. 3) 조정: 반대자들이 캠페인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권력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캠페인과 '타협'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다. 4) 분열: 1989년 이후 샤프가 추가한 메커니즘. 소련 연방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것을 보충할만한 능력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민중의 힘(people power)'에 의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분열되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행동의 종류' 참조).

비폭력 사상은 운동의 궁극적인 성공, 특히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수단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안내서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이슈를 보다 생생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캠페인 전략을 짜고, 행동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이 안내서에 쓴 것들은 사회 운동의 실천,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 반군사주의, 반핵 및 사회정의 운동의 경험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폭력을 사용했던 사례들: 어디서 어떻게, 평화주의자들의 역할, 조직화

각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위, 파업, 보이콧 혹은 다른 종류의 대중적 비협조 등 비폭력행동이 벌어졌던 사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과 소작농의 권리, 노예 해방, 여성이나 무산 계급의 투표권, 인종적 평등, 젠더 평등, 점령으로부터의 해방 등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요컨대 비폭력행동의 이유들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 및 지배를 아우른다. 그러나 20세기 전까지, 특히 남아프리카와 인도에서 간디의 캠페인이 있기 전까지, 그 이전의 운동은 비폭력행동에 대해 사회 변화를 위한 의식적인 전략 정도로 논의했었다.

간디는 비폭력이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및 그 행동이 목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 측면에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었다. 그는 사회적 연대가 지배, 착취 혹은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단지 상대방에 대해 반대하고 모든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의 책임이나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고 믿었다. 자유와 정의는 단순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며 그것의 바탕 위에 운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간디는 일련의 글을 통해 비폭력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그는 피통치자들의 협조에 기반해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관찰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이것을 자신의 시민적 저항전략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간디는 언젠가 이렇게 적었다. '비폭력의 첫 번째 원칙, 그것은 굴욕적인 모든 것에 비협조 하는 것.' 간디는 비폭력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사상가는 아니나 (그는 '진리실험(experiments with Truth)'으로서 그의 경험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선호했다) 특정한 기본원칙들을 강조했다. 하나는 비폭력적 규율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의 필요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설적인 행동의 중요성이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건설적 프로그램' 참조). 식민지 인도라는 맥락에서 간디에게 이러한 건설적인 프로그램은 종교간 적대감을 줄이고 서로 다른 젠더 혹은 카스트 간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맹률 및 위생에 대한 무지에 맞서고 식량 및 의복 생산에 대한 자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었다.

간디가 주도한 캠페인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의 원칙 중 단지 몇몇 만을 공유했다. 그들은 영국의 지배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키기 위해 비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몇몇 사람들은 삶의 방식으로서 비폭력에 대한 간디의 온전한 실천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적 정치지도자들은 실제로 건설적 프로그램에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패턴은 자주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일반적으로 비폭력행동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비폭력을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주 소수만이 철학적 실천으로서의 비폭력을 표현) 효과를 발휘하였다. 인도독립투쟁의 사례는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다른 운동들, 특히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비폭력을 효과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으로 비폭력이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간디가 사망한 지 60년이 지난 후, 비폭력 활동가들은 지금

까지도 '진리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무엇이 비폭력을 효과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현장 학습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어디서 어떻게

비폭력의 방식은 맥락에 따라 무척 다양하다. 1986년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가 실각하면서 '민중의 힘(people power)'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후, 특히 2000년 세르비아 밀로세비치가 몰락한 이후 몇몇 관측자들은 '행동 템플릿(action template)', 즉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꾀한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권을 몰아낼 대중적 비폭력행동에 대해 얘기했다. 물론 밀로세비치의 몰락과 필리핀 '민중의 힘' 그 밖에 다른 곳의 대규모 집회 사이에도 유사점이 존재한다. 비폭력을 사용하여 밀로세비치에 창의적으로 대항한 몇몇 세르비아인들은 실제로 현재 다른 운동들의 트레이닝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각 운동 스스로 몫일 수밖에 없다.

단단히 뿌리내린 잔혹한 정권에 대항할 비폭력의 힘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저항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폭력은 이럴 때 '즉효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물론 무장투쟁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몇몇 이상주의적인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단지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착취 및 착취에 의지해 무장투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결국 '무장한 한줌의 무리들' 썸으로 퇴보하였다. 비폭력은 다르게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동이 점령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넓히는 것을 통해, 정권이 요구하는 것 중 알려지지 않은 것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혁의 과정을 활기를 띌 수 있다. 1970,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고문, '실종', 및 암살단에 직면한 비폭력 행동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재건을 목표로 하였다.

이전 소비에트 연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 대해 신중했고 이러한 저항이 소비에트 군사개입 혹은 탄압을 유발하길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1970년대 폴란드 그단스크(Gdansk)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 4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1980년 자유노조(Solidarnosc)가 결성되었을 때 그단스크 파업 노동자들은 거리 시위를 피했고 대신 조선소 안으로 스스로를 제약했다. 그들은 다른 사회에 영감을 주었으나 당시 그들의 요구사항은 극히 기본적인 첫 단계(자유노동조합 인정)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폴란드 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요구사항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제한적인 목표였다. 폴란드 지식인들은 이것을 '자가 제한적 혁명(self-limiting revolution)'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의 조직력은 정권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대단했으며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몇 년 이내에 단지 폴란드에서만 아니라 소비에트 전역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가 제한을 넘어 다른 요구사항을 만들었고 보다 도발적인 비폭력행동의 방식을 무릅쓰게 되었다.

이 안내서의 독자 대부분은 소비에트 공산주의나 라틴 아메리카 독재 시절보다는 보다 많은 '표

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사회가 조장하는 이미지들로 인한 사회적 '무관심'이다. 우리 사회의 폭력은 필시 감춰지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로써 받아들여질 것이다. 폭력들은 다양한 종류의 국가폭력에서 대량살상무기까지, 사회적 박탈 및 환경의 대대적인 파괴, 멀리 떨어진 곳의 꼭두각시 조종자가 전 세계를 조종하는 폭력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폭넓은 행동을 선택하며 경계선들은 계속적으로 변한다. 어제 신기원을 이룬 행동이 오늘 한낱 일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무언가를 방해하는 위험도 높은 행동도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화주의자들의 역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비폭력을 원칙의 문제로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를 소수집단으로 만든다는 것, 꼭 평화주의적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도 함께 활동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억압적인 시스템에 도전하는 적극적 비폭력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단순한 수사법 혹은 단기간의 충격적인 방법에 그치지 않는 건설적인 대안을 찾길 원한다. 이것은 평화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 조직의 형태 등등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자 혹은 반군사주의자들의 테두리를 넘어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주의자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폭력에 기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적 대안 개발을 위해 우리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은 전략적인 수준 및 조직의 형태 양자 모두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의 개발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필수적이며 획기적인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1940년대 미국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최초의 '프리덤 라이드(freedom rides)'는 평화주의자 주도로 진행되었다. 1950년대 영국 무기에 반대하는 비폭력직접행동(British nonviolent direct action against weapons)도 마찬가지였다. 이 조직들의 창의적인 비폭력은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비폭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중에 비폭력트레이닝이 소개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비폭력 시위에서 사람들이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폭력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행해졌다.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지한 그들 스스로의 성공적인 비폭력 운동 내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에게 비폭력 행동은 초인적인 지도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참가자 모두의 능력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역량의 원천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참여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동아리에 기초한 조직형태 권장 및 비폭력트레이닝을 참여 전략적 평가 및 개발을 위한 방법 등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을 주장해왔다.

조직화

때때로 비폭력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모여드는,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통 이것은 조직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그 행동이 모든 언론에 공개된 어떤 행사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고 전체 캠페인의 한 단계일 경우, 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만드는 노력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는 대충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각각 다른 특정층에게 어필하는 네트워크들, 그들 각자의 고유한 주제 및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조직들, 문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상호 연결된 몇몇 캠페인들로 이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폭력적 태도, 조직의 방법 및 행동의 형태들은 이러한 다양성의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지자들의 협력 하에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사례연구: 미국 시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에서의 비폭력트레이닝

1942년 급진적 평화주의자들은 화해친우회 비폭력행동위원회(Nonviolent Action Committee of th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를 결성하여 반인종주의 및 반군사주의 운동 내 리더십의 양성을 위해 단체들을 훈련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1945년에 인종평등회의(Congress of Racial Equality, CORE)가 탄생했는데 이 조직은 시민권운동에 개입하기 위해 비폭력트레이닝을 개발하는 첫 번째 단체가 되었다.

인종평등회의는 1947부터 10년 동안 워싱턴에서 1개월짜리 트레이닝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수도권의 분리정책을 폐지시킬 목표를 가지고 비폭력 및 조직화의 이론과 기술들을 배웠다.

시민권운동의 초창기에 남부기독교연합회의(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는 미국 흑인의 종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1956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과 같은) 비폭력행동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지역 교회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다른 사람들은 비폭력에 관해 강의를 하였고 공동체 정신 및 비폭력 규율이 강해지도록 노래하고 기도했다. 시민불복종이 시민권운동의 핵심이 되면서, 역할극 및 비폭력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이 트레이닝에 포함되었다.

(인종분리정책이 가장 극심했던) 미국 남부에서는 시민권 운동가들이 맞닥뜨릴지도 모를 폭력에 대비하여 그들을 훈련시킬 광범위한 트레이닝이 진행되었다. 1964년 미시시피자유여름(Mississippi Freedom Summer) 참가자들은 2주 간의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1968년 가난한 이들의 캠페인(Poor People's Campaign)은 가두행진 참가자, 진행요원 및 후원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비폭력트레이닝의 역사: 비폭력 연습” 조앤 쉬헨(Joanne Sheehan) 지음. 비폭력 활동가(Nonviolent Activist), 1998년 7, 8월호에서 발췌

<http://www.warresisters.org/nva0798-4.htm>

사례연구: 오토포(Otpor), 세르비아 민중의 힘

세르비아 청년그룹 오토포(Resist 저항하다)는 1998년 창립 이래 2년 만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실각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처음 오토포 캠페인의 목표는 反밀로세비치 투쟁의 방식을 쇄신하는 것, 이를테면 시민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비폭력 '게릴라' 전술(그래피티, 거리 공연 등)을 사용한다든가 대중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머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오토포 캠페인은 분열된 야당에 압력을 가하고 밀로세비치에 대한 대항 및 '그 권력의 기둥'을 무너뜨릴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다.

비폭력트레이닝 워크숍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밀로세비치가 부정선거를 획책했을 때 오토포는 이를 폭로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군중들이 의회 건물을 포위했을 때 경찰은 그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인 불도저가 의회로 진입할 당시 경찰은 이것을 막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밀로세비치는 사임하였다.

오토포는 세르비아 민주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밀로세비치의 제거)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민주화를 위한 그 이후의 과정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참고자료:

'독재를 타도하다(Bringing Down a Dictator)', DVD, 60분, 요크 짐머만 주식회사(York Zimmerman Inc.) 작품, 미국, 워싱턴

Albert Cevallos, '불도저는 어디로 향하는가?: 세르비아의 비폭력 혁명과 민주주의로의 전환 (Whither the Bulldozer?: Nonviolent Revolution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Serbia)' (미국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 특별보고서 제72호 - <http://www.usip.org> 이 주소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Centre for Applied NonViolent Action & Strategies 웹사이트. 오토포 및 다른 활동가들이 그들의 전략 및 전술에 관해 쓴 글이 실려 있다:

http://www.canvasopedia.org/content/serbian_case/otpor_strategy.htm

비폭력트레이닝: 트레이너의 역할, 비폭력트레이닝의 잠재적 주제들

우리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플래카드를 들고 전단지를 돌리기 전에 반드시 비폭력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폭력트레이닝(문제 분석, 대안 구상, 요구사항 마련, 캠페인 전략 개발, 행동 계획 세우기 및 준비하기, 행동 혹은 캠페인 평가)이라 부르는 전 과정은 조직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직접행동에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직접행동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행동의 한계를 넓힌다. 기본적으로 비폭력트레이닝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지로 실험하고 개발하거나 분석하고 경험을 평가할 안전한 공간을 창출한다.

비폭력트레이닝은 캠페인 혹은 직접행동에서 비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행동들을 잊게 하는 참여적 교육의 경험이다. 비폭력트레이닝은 함께 활동하는 것을 배우고 조직(혹은 공동체)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비폭력트레이닝은 비폭력의 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걱정, 두려움 등의 감정들을 나누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단체 내부의 위계 및 억압, 그것의 작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 스스로에게는 트레이닝의 자신감을 기르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명확히 하도록 도울 것이다. 비폭력트레이닝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집단행동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다양한 훈련 및 트레이닝 방법들을 아우르며 이것의 몇몇 사례들은 이 안내서 제7장에 소개되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트레이닝, 칠레 산티아고

비폭력트레이닝은 사람들이 비폭력직접행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개발 기법 및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며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 및 억압의 문제들을 다룬다. 비폭력트레이닝은 행동의 시나리오를 익히고 계획을 발전시키며 훈련하고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는 등 종종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조직에게는 연대를 맺고 동아리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역할극을 통해 ('역할극' 연습사례 참조), 사람들은 직접행동에서 경찰,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비폭력트레이닝은 캠페인의 요구사항 및 일정, 트레이닝의 목표, 참가자들과 트레이너가 가진 경험 및 면면에 따라 그 기간은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다양할 수 있다. (비폭력트레이닝을 보다 자세히 기획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조직화의 임무 및 방법들' 참조.)

“저의 첫 번째 트레이닝 경험은 2003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몇 년 동안 참여해왔던 칠레 병역거부자였습니다. 트레이닝은 정말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가지고 칠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트레이닝 이전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군대 건물 앞에 서서 단순히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였는데 트레이닝을 진행한 이후 좀 더 높은 위험성을 지닌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닝 이후) 좀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 행동을 위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비엘 가라페(Javier Gárate)

트레이너의 역할

비폭력트레이너는 배우는 과정 전체를 통해 그룹 내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트레이너는 트레이닝의 주제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 트레이너는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비폭력 트레이닝을 원하는 조직들이나 공동체들에 지역 트레이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몇몇 기술들을 개발해왔고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사용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나 기술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트레이닝 팀을 조직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트레이닝 팀은 여성과 남성, 다양한 연령층 및 인종적 배경의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트레이너에게 필요한 것:

- 좋은 집단 상호작용 기술 및 그룹의 역학관계에 대한 인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루 참여하여 서로의 해안 및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너의 역할이다.
- 비폭력행동 및 캠페인에 대한 이해. 만약 트레이닝 참가자 중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트레이너는 그룹의 배움을 돕기 위해서 사례연구(case study) 및 연습사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떻게 적절한 연습사례를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룹의 욕구 및 스타일에 민감해져라.

가능한 비폭력트레이닝의 주제들

비폭력의 역사 및 철학, 비폭력 행동의 관행

압제 극복하기, 인종 및 젠더 역학 (제2장 및 제10장의 자원 참조).

캠페인 전략 개발 (제 3장 참조).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및 빠른 의사결정 ('그룹으로 활동하기', 및 '의사결정' 연습사례 참조).

동아리란 무엇이고 전체 그룹 내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동아리' 및 '행동 중, 이전, 이후의 역할 참조).

법적인 지원 및 언론 대응과 같은 기술들 ('법률적 지원', 및 '언론의 역할' 참조).

당신과 당신의 그룹: 조직 강화하기, 차이점 탐구하기,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 안내서는 조직(group)을 위해 쓰인 것이다. 조직은 아마도 특정 대의나 혹은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친분 혹은 동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혹은 일회성 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다. 개인들조차도 보통은 단체의 지원을 일정정도 필요로 한다. 안내서 중 캠페인에 관한 장(제3장)은 장기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룹들에게 보다 유용하다. 이에 비해 행동 준비를 위한 장(제 4장)은 특정 행사만을 위해 조직된 그룹에게 더욱 적당할 것이다.

강력한 조직(함께 지내며 잘 활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은 운동에 힘을 불어넣는다. 그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즐거운 조직들은 뭔가 독특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며 멤버들 간의 다양한 욕망 및 재능 사이의 특정한 균형의 특별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장은 그룹의 한 멤버로서 개인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을 제공한다. 어떤 관점들은 그룹 차원에서 토론해 의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고 다른 것들은 진전시켜야 하는 것들이다.

조직 강화하기

첫째는 사람들이 조직 자체의 기능과 태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마르지 않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행동의 목표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논쟁하는 것에 대해, 이번 행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종류의 행동이 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그룹을 조직하고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것을 원하는 사람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직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 스스로의 방식 및 전체적인 방향,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중용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그룹이 많은 에너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하위 그룹이 특정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정치적 관점 혹은 태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만드는 것이 좋다. 활기를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조직이 크고 오픈된 형태이든 작은 동아리에 국한된 그룹인가에 관계없이 ('동아리' 섹션 참조) 사람들은 새롭게 결합하는 이들이 환영받는다느 느낌,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길 바랄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 억압적인 행동, 계급, 인종 및 젠더 역학관계, 그룹 내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그 자체로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

론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젠더에 관한 섹션인 제2장은 몇몇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단순히 일상적인 모임 말고 특별한 세션을 조직하거나 정기적 모임에서 특별히 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유용하다. 때로 이것은 기술 공유, 캠페인 개발, 심지어 특정 캠페인 주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등 현실적인 초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 때로는 활동가들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배너를 만들고 노래를 하는 등) 혹은 그룹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차이점 탐구하기

어떤 시점에서 비폭력이라는 용어와 연관된 몇몇 쟁점들, 비폭력의 유형, 그것의 영향, 가치, 태도 및 목표들 등을 고찰하는 것은 비폭력행동 그룹에게는 매우 유용한 일이다. 그룹 멤버들의 깊은 신념을 움직이는 모든 쟁점은 차이에 대한 존중을 다루게 될 것이며 이것은 집단적인 그룹의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 인식과 관점을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함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깊게 만든다.

비폭력 자체에 관한 질문을 던져라. 비폭력에 대한 실천은 그룹을 통합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폭넓은 철학으로서 비폭력을 사고하는 사람 사이의 분열은 종종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폭력에 관한 몇몇 쟁점들은 집단적인 원칙선언 차원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비폭력행동의 원칙들', 및 '비폭력 가이드라인'을 보라), 비폭력행동의 실천을 표방하는 그룹조차도 비폭력의 다른 측면들(긍정적, 부정적 양자 모두)에 관해서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다. 쟁점을 둘러싼 좋은 토론은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줄 것이나 별로 안 좋은 토론은 긴장과 불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

차이를 탐구하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가치들의 '지표', 혹은 '스펙트럼' 놀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서로 다른 태도, 행동 및 요소들을 탐구하기 위해 이 질문모음들을 개발하였다. 그룹에 질문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이동한다. 하나는 '비폭력이다 혹은 아니다'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혹은 하지 않을 것이다'의 축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하는 그룹에 함께 하고 싶다 혹은 함께 하고 싶지 않다'로 발전될 수 있다. ('스펙트럼 혹은 지표' 참조)

'당신의 그룹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간단한 대답 한 가지로 끝날 수 있지만 그룹 내의 각 멤버들이 그것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 및 감정들은 사람들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간단한 몇 가지 소개를 위한 놀이들은 사람들에게 그들

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안내서가 사회변화라는 꽤 느슨한 아이디어를 넘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동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관점들을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관점들은 그룹들마다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률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태도를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신의 그룹이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그 행동에서 보일 서로 다른 태도들 및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맥락, 즉 특정한 비폭력행동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때때로 해설자들은 '전통적' 및 '비전통적' 행동의 방식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맥락은 그것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 패쇄적인 사회에서는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거나 혹은 '침묵을 깨는 것' 만으로도 거대한, 아마도 폭발적인 혹은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 '비전통적'인 행동, 예를 들어 시민불복종 혹은 파업 등은 제도 내로 수용되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 재네들 그거 또 하네'라고 무시하든가 참여자 스스로가 관례적인 형태의 행동에 간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몇몇 사회운동 이론가들은 '초월적(transgressive)' 혹은 '제도 내적(contained)' 행동은 '전통적/비전통적' 행동에 비해 보다 유용한 구분이라고 제안해왔다. (다툼의 역동성(Dynamics of Contention), 더그 맥아담(Doug McAdam), 시드니 테로우(Sidney Tarrow) 및 찰스 킬리(Charles Tilly) 지음, 캠브리지 대학 출판, 2001, pp. 7-9를 보라)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효과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그룹 내 몇몇 차이들(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동에 관한 태도)은 행동의 맥락에 대한 서로 다른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것일 수 있다. (맥락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항의의 목소리를 전하기', 및 '비폭력행동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를 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활동가로서 당신은 당신이 단체한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단체를 원하는가? 신념과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강력한 성명을 만들 수 있는 단체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 당신은 보다 광범위한 캠페인의 맥락에서 비폭력을 촉진할 동아리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그룹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져올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단체들은 보통 실제적,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보일지에 대해 짐작할 수 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월광장어머니회(Las Madres de la Plaza de Mayo)

의 첫 번째 시위에는 단지 14명의 여성만이 참여했다. 심지어 더 적은 숫자로 시작한 다른 강력한 운동들도 있다.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행동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많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수많은 행동들이 예상보다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폭력행동 그룹은 행동의 모든 레퍼토리들을 인지하고 행동 목적에 대한 강한 자각 및 행동의 맥락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안내서는 행동을 준비하기, 캠페인 만들기 및 한 일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